

논문지 편집위원회를 맡으며...

안녕하십니까?

2007년도 논문지 편집위원회의 운영을 맡게 된 성균관대학교 엄영익, 서울대학교 백윤희, 전북대학교 안동언, 한양대학교 오희국, 연세대학교 이봉규입니다. 학회의 대표 얼굴이라 할 수 있는 논문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학회 회원 여러분들께 첫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 학회가 회원 수 1만명을 넘어선 대규모 학회로 발전하고 있음을 볼 때 이제 논문지도 그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논문지의 대 회원 서비스가 한층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회원 여러분 모두 인정하시고 기대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저희 위원장단 및 위원들은 논문지 수준의 향상과 회원 대상의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07년도에 다음 사항들에 중점을 두고 논문지 관련 업무를 진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07년 2월부터 저희 학회에서는 논문정보화시스템(KISTI-ACOMS)이 운영됩니다. 회원 여러분의 논문 투고에서부터 심사 전 과정, 그리고 심사결과 통보 및 최종논문 접수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on-line으로 이루어지게 되며, 이에 따라 회원 여러분들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 운영되는 시스템이라 약간의 불편이 따를 수도 있겠으나 저희 편집위원회에서는 논문정보화시스템이 궁극적으로 회원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시스템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논문정보화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논문심사의 공정성을 더욱 단단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회 논문지의 생명은 논문심사 과정을 공정하게 진행시킴으로써 보다 우수한 논문들이 게재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 저희 편집위원회에서 가장 큰 책무로 생각하고 공정성이 확보되는 심사 시스템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논문정보화시스템 운영을 시작하면서 논문심사 기간 및 논문 게재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대한으로 단축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논문 게재 소요시간을 파악, 분석해 보고 이를 단축시킬 수 있는 세부과정들을 도출하여 전체적으로 논문 심사 및 게재에 소요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논문지가 회원 여러분들께 더욱 우수한 논문지로, 그리고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논문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더욱 우수한 논문들을 많이 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1월

논문지 총괄 편집위원장	성균관대학교	엄영익
논문지A 편집위원장	서울대학교	백윤희
논문지B 편집위원장	전북대학교	안동언
논문지C 편집위원장	한양대학교	오희국
논문지D 편집위원장	연세대학교	이봉규